

2018년 12월 13일, 제주시 이도2동 신설동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김계태(여, 1933년생, 제주시 이도2동)

- 일본 시가현 출생, 13세에 부모의 고향인 제주도로 이주하여 조천읍 조천리에서 50년 정도 살았다. 그 후 이도2동으로 이사하여 지금까지 20여 년간 거주하고 있다.

• 줄거리: 옛날 ○○에는 머리가 아홉 개 달린 뱀이 살았는데, 일 년에 한 번씩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. 어떤 목사가 이 광경을 보고 참지 못하여 뱀을 활로 쏘아 죽이자,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말했다. 그런데 의심이 든 목사는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목사는 목숨을 잃고 만다. 그 이후로는 뱀에게 처녀 대신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.

[제보자] 아니, ○○굴은양. 췌번 그 처녀로, 그 처녀로 바쳐 낫젠 험니다. 일 년에 혼 번씩. 게난 그 처녀로 허난 순번이 잇젠마썸. 다음엔 이 처녀, 췌 처녀. 게난 그것 이 이젠 목사가 어는 췌 목사가 오셔가지고.

“이거 안 댜겐다.”

사름으로 헌다는 게 안 댜겐덴. 게난 이젠 혼 번은 처녀 맞지어 놓고 굿을 허는디, 그 이제 베염이양 저 아홉 갠가 부튼 베염이 여기 왓더렌마썸.

[조사자] 머리가 아홉 개마썸?

[제보자] 응, 그 처녀 들러 먹을라고. 허난 그 이제 오라네 보난 안 댜니까 그걸로 이제 쏘안 죽여분 췌이라마썸. 쏘안 죽여부난. 이제 목사가, 누게가 이제 돌아보지 말렌 험 돌아오는디, 물 탕 돌아오는디 돌아보지 말렌 헌디. 그 목사가 의심이 췌 경 확 돌아샀다 헤요. 돌아사니까 목사는 죽어불고예. 글로부튼 이젠 도새기, 사름 대신 도새기로 헛젠 험데다게. 게난 그 목사 때문에 경해도 그걸 처녀도 바쳐단, 그 신을 이제 돼지로. 게난 일년에 혼 번씩 돼지로 고스 지낸다고.

[조사자] 건 옛날 ○○에서 어르신들이 경 굴읍니까?

[제보자] 응, 우리도 다 들언.

• 핵심어: 처녀, 베염(뱀), 목사, 도새기(돼지), 고스(고사)